

## 한국의 전통 건축과 전통가구에서 나타나는 미의식의 연계성

정 명 택<sup>†</sup>

영남대학교 디자인미술대학 생활제품디자인학과

### The Connectivity of Aesthetic Consciousness Appearing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Furniture

Myung Taek Jung<sup>†</sup>

Department of Living Products Design, Yeungnam University, Kyongsan 712-749, Korea

**Abstract:** The culture of Korea shows political and religious discrimination by changed the era, but in the culture the inherent spirit of Koreans has been more specific at various angles to. But in the last several decades looking at the domestic furniture design field, the introduction of Western technology with high-tech, the mechanical plastics of modern Western European furniture, and imitations have been flooded. Owing to them our spirit were soon altered and made to face the current leads to confusion. Fortunately, in the latest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sign fair the domestic furniture companies are breaking the ambiguous identity of the design in the meantime they keep studying and developing of our spirit and the demands of the times. Moreover, a new awareness and heightened interest on Korean traditional and stylish furniture are more elevated. At this moment, a study on the Connectivity of Aesthetic Consciousness Appearing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Furniture is required to overcome the today's confusion and to establish identity and the direction of the domestic furniture industry. Thus, this paper purposes to present the new direction for domestic furniture industry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on the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raditional furniture with the Korean spirit and a sense of beauty.

**Keywords:** furniture, traditional furniture, Korean Aesthetic Consciousness

## 1. 서 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의 문화는 시대가 변천해 오면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의 정신은 다양한 각도로 더 구체화 되어왔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

가구디자인분야를 살펴보면 서구의 하이테크 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서구 모던의 기계적 조형과 유럽식 가구의 모방이 범람하였고 이는 곧 우리의 정신마저 변질되고 혼미해져 가는 현 당면사항에 이르르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국내 가구업체들은 그동안 모호한 디자인의 정체성을 탈피하고 우리의 정신과 시대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연구와 개발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가구의 절제 있고 세련된 미의식에 관한 대중들의 새로운 인식과 관심도 점점 더 고조되어 가

2014년 6월 17일 접수; 2014년 7월 17일 수정; 2014년 7월 17일 게재확정

<sup>†</sup> 교신저자 : 정 명 택 (jungmyungtaek@y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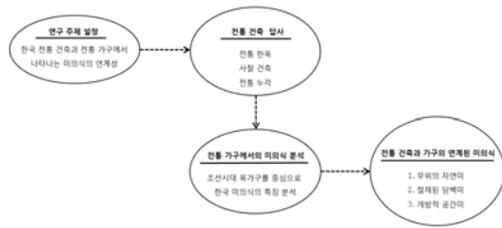


Fig. 1. A organized chart of the study.

고 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한국의 전통 건축과 전통가구에서 나타나는 미의식과 상호 연계성에 관한 연구는 오늘의 흥미를 극복하고 현대 사회에서 국내 가구산업의 방향과 정체성 확립을 하는데 있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한국 전통 건축과 전통가구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의 정신과 미의식을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라 앞으로 한국 가구디자인이 우리의 높은 미의식을 지니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학술적 탐색과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고의 연구범위는 한국의 한옥, 사찰, 누각을 통한 전통건축에 내재된 미의식의 분석과 조선시대 전통가구에 내재된 미의식을 상호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단, 지금 현존하는 전통가구는 조선 후기의 것이 대부분이지만 전통가구에 내재된 한국의 미의식은 그 이전 시대부터 축적된 결과로 보고 연구범위의 타당성을 두었다. 이러한 비교분석에 앞서 제2장에서는 한국 미의식의 특수성 중 무위자연의 철학을 살펴보고 전통 건축과 전통가구에 내재되어 있는 미의식을 순차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전통건축과 전통가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미적 특성을 각각 무위(無爲)의 자연미(自然美), 절제된 담백미(淡白美), 개방적 공간미(空間美)로 구분 짓고 이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계적 분석을 통해 한국 미의식의 대표적 특성을 기술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한국의 전통건축과 전통가구에서 내재되어 있는 미의식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 건축을 지역별로 구분 지어 답사를 진행하고 조선시대 전통 가구 속에 내재되

어 있는 미의식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미의식에 관련한 단행본과 학술지 논문 등 문헌자료를 참고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경주국립박물관, 민속박물관 등을 통해 전통가구에 대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다(Fig. 1).

2. 한국 미의식의 특수성

미의식이란 미를 이해하는 감각과 경험을 뜻하며, 미를 창작하거나 감상할 때의 인간의 의식을 말한다(이 2011). 한국인의 미적 감각과 경험은 오랜 세월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통해 그 특수성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의 문화는 삼국시대에 불교 유입으로 인한 평면의 회화성과 입체적 조형성이 형성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사상으로부터 나온 생활 속의 소박하고 검소한 검박성(儉朴性)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웃 중국과 일본의 문화와 비교하여 한국 문화만의 독특한 독자성을 갖는다. 이러한 한국의 미의식은 외형보다는 정신이 강조된 정신의 문화이며, 수준 높은 안목의 문화라 할 수 있다.

2.1. 무위 자연(無爲自然)의 생활 철학

20세기 말부터 현대사회는 자연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친환경적인 디자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궁극적인 원인은 자연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살펴보면 한국인은 예부터 자연과 동화되어 그 속에서 건축물을 짓고 자연 풍광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을 이상적인 삶이라 여겼다. 인간과 자연을 삶의 한 선상에 있는 밀접한 관계로 본 것이다. 자연(nature)이라는 말은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쓴 『도덕경』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도덕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도(道)라고 할 수 있으며 도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무위(無爲)와 자연(自然)이다. 무위란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의미이다(안 2006). 다시 말해 노자의 자연관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연을 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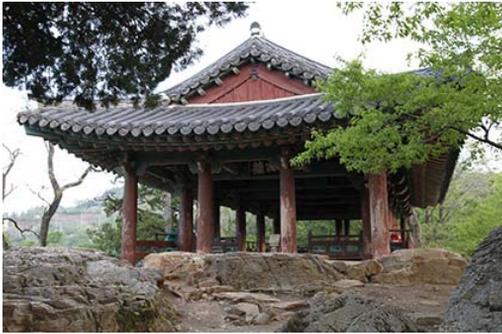


Fig. 2. Jukseoru, Samchuck-si. Joseon dynasty (Treasure no. 213).



Fig. 3. Three-storied stone pagoda, Yongjongsaji.

손시키지 않고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무위자연의 생활철학이 한국 전통 건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삼척시의 오십천(五十川) 변에는 관동팔경 중 제1루인 죽서루(竹西樓)가 있다. 원래 팔작지붕이었던 이 누각에서 산과 강의 기운과 풍류가 깃든 옛 선비들의 멋진 자연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죽서루는 17개의 기둥들이 절벽의 암석을 그대로 주춧돌로 삼아 각기 다른 길이들로 균형을 잡고 있다. 어느 기둥하나 인위적으로 다듬어 세워 놓은 것 없이 검은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흐르는 강 위에 자연과 함께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Fig. 2). 또 다른 예는 경주 남산에 위치한 용장사지 3층 석탑이다. 이 석탑은 자연적으로 생긴 지반위에 기반을 한 층 올려 조성되었다. 불국사의 석가탑이 그러하듯 두 기층의 기반으로 된 석탑으로 해석한다면 첫



Fig. 4. A footstone of the Mandae-ru, Byeongsan auditorium.

번째 놓인 기반은 자연 기반인 셈이다. 그러므로 용장사지 3층 석탑은 자연 암벽을 하부기단으로 사용한 세상에서 가장 큰 석탑이라 볼 수 있다(Fig. 3). 이렇듯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 속에서 깊은 사상과 학문을 포괄하는 멋진 우리 선조들의 지혜이다. 또한 한국의 무위자연의 생활철학은 인공적인 군더더기를 최소한으로 배제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린 우리선조들의 철학이다.

## 2.2. 한국 전통 건축에서 나타나는 미의식

연구자는 전통 한옥, 사찰, 누각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건축에서 나타나는 미의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인의 정서와 철학에서 가장 큰 특성은 자연주의적 사상이었다.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최고의 이상향으로 여기었으며 건축은 건축물 자체로서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존재하며 완성이 된다는 철학을 지녔다. 특히 전통한옥은 목재의 생김 그대로를 건축의 구조물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적용하였다. 또한 건축구조물의 초석인 팀빙주초는 한국 고유의 ‘그랭이 질’이라 불리는 독특한 공법을 사용하며 인위적으로 다듬는 가공을 최소화시켰다. 이러한 한국 전통 건축의 독특한 특성들을 한국의 대표적인 자연주의적 미의식이라 할 수 있다(Fig. 4). 또 다른 한국 건축에서의 미의식은 서양의 건축물처럼 스케일로서 강한 존재감을 압도하는 기념비적인 성격이 아닌 건물과 자연, 건물과 건물이 맺는 일정한 규모로 한정



Fig. 5. Subongjeongsa, Nampyeong Moon's Bonli habitation as a modern village.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구체성이 의도적으로 절제되어 있어 각각의 매력적인 건축의 요소들이 보일 듯 말 듯 우아한 수줍음으로 숨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전통 건축은 목재 골조가 회벽과 어우러지며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미를 보여준다. 더불어 이러한 골조들은 추상적 변분할로서 노출된 골조미를 갖는다. 그 예로 대구 인흥마을에 위치한 남평문씨본리세거지(南平文氏本里世居地)를 보면 기둥과 보가 회벽을 사이에 두고 그대로 노출되면서 이차원적 분할로 평면적 회화성을 띄고 있다(Fig. 5). 이는 일본의 건축공간이 자로 그은 듯 반듯하게 수직 수평의 직선적 분할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절제된 담백함이다(Fig. 6). 이처럼 ‘한국 전통 건축의 목구조는 삼차원 구조체를 이차원으로 투영하면서 회화성이라는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임 2011). 또한 분할에 있어 ‘비례’ 체계는 단순하고도 아름다움을 풍기는 담백한 미적 아름다움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한편 연회와 풍류를 즐기던 공간이자 세상에 관한 담론이 오갔던 전통 누각에서 볼 수 있는 건축의 공간미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건축 내부로 받아들이기 위한 개방적 공간의 특징을 보여준다. 삼척의 죽서루, 밀양의 영남루, 진주의 축서루 등은 산과 강을 벗 삼아 사방이 개방되어 이러한 내외부의 비경계적 공간미를 보여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누각들이다.



Fig. 6. The Yoshijima house in Takayama, Japan.

### 2.3. 한국 전통 가구에서 나타나는 미의식

고려 말부터 실시되었던 숭유억불정책(崇儒抑佛政策)으로 조선시대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등 유학사상이 사회 전반적인 이념으로 숭배되었다. 그로 인해 민중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억불정책은 사찰 수공예 등 고려시대 찬란했던 전통 기술의 단절과 위축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장인들의 수공예 기술은 발전되지 못했으며 예술에 대한 민중의 미의식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이념은 상대적으로 자연에 대한 존중과 민중의 소박하고 검소한 미의식을 움트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가구 분류는 크게 안방가구, 사랑방가구, 부엌가구, 제례가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안방은 여성들이 쓰는 공간이었지만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재료의 장식보다는 목재 그대로의 자연 목리(自然木理)를 이용하여 단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이는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하여 계절마다 수종(樹種)의 성장속도가 다르고 그 때문에 나이에 선이 선명하여 가구의 재료로서 자연이 만들어 낸 목리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Fig. 7). 사랑방은 남성들이 쓰는 공간으로서 배치된 가구를 보면 일체의 장식과 화려한 목리는 배제하고 매우 간결하고 절제된 선(線)과 면(面)의 사용으로서 담백한 조형성을 보여준다(Fig. 8).

고식(古式)의 가구는 목리의 아름다움보다는 소나무, 오동나무, 가래나무 등 넓고 쉽게 비틀어지



Fig. 7. Furniture of Women's Quarters (박 2011).



Fig. 8. Furniture of Men's Quarters (박 2011).

지 않는 판재를 사용하여 가구의 기능에 충실한 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목가구의 제작에서는 목재의 수축팽창을 극복할 수 있는 부판기법의 활용으로 좁은 판재로도 아름다운 목리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기둥과 쇠목, 동자 등 힘을 받는 골재와 함께 사용하여 한층 조형성이 뛰어난 대형가구의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박 2011). 더욱이 가구표면은 옷칠마감기법의 사용으로 자연의 색을 그대로 추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전통 목가구를 비롯한 한국의 목공예품은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일정한 격식이나 규격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장식적이고 인위적인 면보다는 자연재료를 사용한 순수하고 소박한 미의식이 강조되어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 3. 한국의 전통건축과 전통가구에서 나타나는 미의식의 연계성

한국의 자연 환경, 건축양식, 생활공간별 가구의 미적 특성을 기준으로 연구자는 전통건축과 전통가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미의식을 크게 무위의 자연미, 절제된 담백미, 개방적 공간미로서 세 가지로 나누고 각 특성을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는 전통건축과 전통가구를 비교하여 연계·분석하였다.

#### 3.1. 무위의 자연미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 그 일부로 귀속하고자 하는 친자연적 낭만주의라 말할 수 있다. 담양의 소재원, 삼척의 죽서루, 화엄사의 구층

암, 개심사의 심검당 등 건축물의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미의식은 단순하게 자연경관을 바라보고 즐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가치였으며, 구도(求道)의 길이었다. 한 예로 개심사 범종각을 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을 보면 한국 산천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흰 나무를 수직으로 반듯하게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의 형태를 사용하여 자연미를 살렸다. 자칫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 형태지만 오히려 기둥의 굴곡은 주변의 경관과 함께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건축 형태에 있어 친자연적 미의식은 그대로 건축 내부로 연계되어 목가구의 형태면에서도 동일한 미의식으로 나타난다.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던 조선시대 목가구는 인위적인 채색이나 장식보다는 자연적인 표면처리에 치중하는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가구의 목재로는 판재와 각재가 쓰이는데, 판재로 많이 쓰이는 수종은 느티나무, 단풍나무, 음나무, 감나무, 오동나무, 물푸레나무 등이다. 이들은 재질이 치밀하거나 견고하여 광택이 좋고 내습성이 강한 재료들이다. 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나뭇결을 좌우대칭으로 구성하여 자연적인 무늬를 나타내는 예가 많다. 특히 느티나무, 물푸레나무의 용이에서 형성되는 무늬나 뿌리 근처를 켜서 얻어지는 자연적인 선회곡선의 나뭇결은 웅트림하는 듯한 모습이라 하여 용목(龍木)이라 부르며, 장롱반닫이, 문갑, 연상 등 가구재로 즐겨 사용해 왔다. 또한 떡감나무에서 얻어지는 흑색의 선연한 목리는 선비의 고결한 인품과 비유되어 문갑, 연상 등 문방 가구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임 1981). 건축과 가

**Table 1.** The natural beauty of ‘wu-wei’

전통건축	전통가구	무위의 자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의 소통을 이루고 있는 소쇄원의 광풍각</li> <li>- 먹감나무의 생긴 자체로서 자연과 암벽의 이미지를 연상케하는 반다이</li> </ul>
담양 소쇄원의 광풍각	반다이, 119.7 × 40.2 × 98 cm, 19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마당의 모과나무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한 화엄사 구층암</li> <li>- 금속장식을 최소화하고 목재의 목리미를 추구한 책장</li> </ul>
화엄사 구층암의 모과나무기둥	책장, 86.6 × 39.0 × 127.6 cm, 18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무의 생긴 모양을 회벽과 함께 자연 그대로 살린 개심사 심검당</li> <li>- 목재의 목리미를 그대로 살린 조선시대 책장</li> </ul>
개심사 심검당	머릿장, 70.8 × 37.0 × 70.8 cm, 18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의 힘을 그대로 건축 기둥으로 사용한 개심사 범종각</li> <li>- 먹감나무의 목리로서 한쪽의 그림을 보는 듯한 이층농</li> </ul>
개심사 범종각의 흰 나무기둥	이층농, 79.3 × 41.0 × 128 cm, 19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석에 맞추어 기단석을 깎아 올려놓은 불국사의 석축</li> <li>- 매끈하게 파낸 것이 아닌 나무를 손질한 흔적을 남겨 자연스러운 멋을 살린 함지</li> </ul>
불국사의 청운교 기단부분	함지, 53.8 × 17.5 cm, 20세기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적인 가공을 최소화한 달성 삼가현의 기둥</li> <li>- 나무의 자연스러운 멋을 그대로 둔 무기교의 목등경</li> </ul>
달성 삼가현	목등경	

구의 구조면에서도 자연미에 대한 미의식을 찾을 수 있다. 개심사 심검당의 목재구조는 기둥과 보 모두 흰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비정형적 곡선미가 건축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개심사의 건축물들은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자연 순응적 세계관으로 인식된다. 한편 건축의 초석으로 자연석을 사용한 덩벙주초의 많은 사례들은 인위적 행위 없이 자연에 순응하며 완성된 조형미를 보여준다. 전통 목공예품 중 매끈하게 다듬은 것이 아닌 끝의 흔적을 자연스럽게 남기면서 멋을 살린 함지박이나 목등경의 구조 등은 인공적인 가공을 최소화한 무위의 자연미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건축물과 가구에서만 보이는 한국의 독특한 미의식이라 할 수 있다(Table 1).

### 3.2. 절제된 담백미

한국 전통 건축 중 곡선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처마는 가까이 중국과 일본의 것에 비교하여 단순하지 않고 매우 사색적이고 절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보 제18호로 지정된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단층 팔작지붕의 주심포계 건물이다. 적지 않은 전체 건물 크기의 시각적 무게감을 덜어주는 추녀의 네 귀는 매우 절제되고 세련된 곡선으로 8각 활주를 받쳐주고 있다. 또한 기둥의 배흘림은 과하지도 않고 빈약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게 알맞아 시각적으로 전체 건물을 올려다 볼 때 매우 안정감을 준다. 따라서 무량수전은 사찰의 높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웅장하거나 화려함으로 위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박하고 차분한 인상으로 한층 그 자태를 돋보이게 한다. 이러한 처마곡선의 절제 있는 담백함은 사랑방 가구인 서안이나 경상의 변죽 형태와 비교할 수 있다. 짜임의 내적 정밀함과 단아함으로 절제 있게 말아 올려진 변죽에서 조선시대 학자적인 고결함이 보인다. 가로 세로 수직 수평의 간결한 가구들의 조형에서 이러한 변죽의 작은 곡선은 자칫 지루하고 딱딱한 사랑방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려 준다.

한국의 미의식에서 목가구의 조형적 특성은 서구나 중국의 입식문화와는 다른 좌식생활에서 기인

한 좁은 공간의 건축양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좁은 공간에 맞게 가구의 규모도 낮고 작은 것들이 주로 제작되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누워 있는 이의 어깨를 가려주도록 높이를 고려해 머름대를 놓았으며, 머름대 높이에 맞추어 낮은 문갑과 서안을 제작하여 방안에서 밖의 정원을 관조(觀照)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간결하게 뼈대로만 이루어진 사랑탁자는 우리 전통 가구에 있어 안정되고 절제된 담백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해인사의 대장경판고는 약 50 m 간격을 두고 동서로 길게 평행된 건물 두 동과 그 간격 양측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작은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들은 각면의 크기와 모양이 다르고 모두 창고로서 보관시설과 환기시설 등 탁월한 기능면을 고려한 건축물로서 기능에 의한 절제된 담백함의 조형을 이룬다. 대장경판고 건축물처럼 장식미가 매우 절제되어 있고 반면 비례미와 기능성이 강조된 사랑방의 장문갑은 단아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검박한 미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구의 디자인시장에서도 ‘검박한 럭셔리(frugal luxury)’, ‘청빈한 디자인’ 등의 콘셉트로 매우 절제된 디자인이 추구되어 지고 있다(<http://news.chosun.com>). 하지만 전통 건축과 가구에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절제된 담백미는 한국인이 아니면 흉내 낼 수 없는 우리만의 미의식이다. 한국 전통 건축과 가구가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하고 초출하지만 분명 그 안에는 비범한 안목이 있으며 높은 격조와 정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Table 2).

### 3.3. 개방적 공간미

전통 한옥의 대표적 공간 특징인 중첩(重疊)과 관입(貫入)은 방과 방 사이의 관계를 폐쇄적 단절로 보지 않고 개방적 연속으로 정의하려는 공간관을 의미한다. 더불어 사물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구별하려는 결정론적 시각에 반대하는 불이사상(不二思想)은 공간 사이의 구별을 모호한 상태로 나누는 한옥의 공간적 특징으로 나타난다(임 2011). 한옥은 용도에 따라 칸막이를 설치하여 공간을 나누어 쓰기도 하고 필요시 칸막이를 해체하여 넓은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쓰기도 한다. 이렇듯 실외와

**Table 2.** The frugal beauty of temperance

전통건축	전통가구	절제된 검박미
 <p>무량수전(국보제18호)의 처마, 영주 부석사, 고려시대</p>	 <p>서안, 29.2 × 24.8 × 56.6 cm, 19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이 과하지 않도록 절제된 무량수전의 처마선</li> <li>- 단아한 서안 상판의 변죽곡선</li> </ul>
 <p>도산서원 농운정사</p>	 <p>이층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옥의 단출한 방문과 창호의 효과</li> <li>- 장식적 꾸밈이 없는 차분하고 검소한 이층농</li> </ul>
 <p>합천 해인사 대장경판고</p>	 <p>문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고로서 기능에 충실한 해인사의 담백한 대장경판고</li> <li>- 비례와 장식에 있어 매우 절제되어 있는 문갑</li> </ul>
 <p>극락보전(국보 13호), 강진 무위사</p>	 <p>연상, 31.5 × 20.5 × 17.3 cm, 19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아한 맛배지붕의 강진 무위사의 극락보전</li> <li>- 간결한 구조가 돋보이는 19세기 연상</li> </ul>
 <p>경주 독락당(慶州 獨樂堂)</p>	 <p>고비, 오동나무, 19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 독락당의 간결하고 담백한 보와 기둥의 교차</li> <li>- 간결한 두 사각판재로 구성된 고비</li> </ul>
 <p>도산서원 내 도산서당</p>	 <p>삼층 찬탁, 147.8 × 40.7 × 149.2 cm, 19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벽에 가로 세로 회화적으로 절제된 면 분할의 기둥과 보</li> <li>- 절제 있고 담백한 삼층 탁자의 구성미</li> </ul>

실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는 한옥의 개방성은 생활의 터전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방적 공간미는 전통누각에서 더욱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정면 7칸, 측면 2칸으로 축조된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간결한 골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방으로 자연풍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축물로 공간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그 외 밀양 영남루, 진주 축석루, 삼척 죽서루 등 누마루들도 주변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부재의 적절한 배치와 건축의 비례가 돋보이며 건물 안의 인공과 건물 밖의 자연이 하나가 되는 개방적 공간의 미학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부와 외부 공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개방적 공간의 특성은 전통 가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선비들의 기품이 깃들여 있는 사방탁자는 군살 한 점 없는 완벽한 뼈대가 이루는 개방적 공간의 진수를 보여주며 비움의 미학을 잘 전달해 준다. 또한 가는 대나무 살로 비례미와 공간의 조형성을 부각시킨 죽계고비, 다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간문갑이라고도 부르는 장문갑에서도 개방적 공간의 미학을 엿볼 수 있다. 달성의 삼가헌과 창덕궁 후원의 연경당에서 볼 수 있는 내부공간의 연속성은 사방탁자나 찬탁의 개방적이고 반복적인 공간의 구성과 비교하여 간결하고 합리적 기능성을 추구한 한국인의 미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Table 3).

####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건축과 전통가구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미의식의 연계성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통건축과 전통가구는 인공적인 구조미가 아닌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자연이 주는 재료의 성질 그대로를 사용하는 한국의 독특한 ‘무위적 자연미’로 연계되어 있다.

둘째, 자연소재의 꾸밈없는 사용으로 축조된 전통 건축의 구조와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간결하고 소탈한 전통 가구의 구조에서 ‘절제적 담백미’라는 동일점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전통 한옥이나 누각에서 볼 수 있는 관입과 중첩의 독특한 공간적 특성은 좁은 생활공간 안에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가구의 뛰어난 구조적 공간성으로 연결되어 한국인의 삶의 터전에 있어 ‘개방적 공간미’를 보여준다.

최근 서구의 대형 가구 매장이 국내로 진출하면서 국내 가구산업의 위축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외국의 대형 기업과의 자유경쟁에서 국내 가구산업의 방향은 한국 문화의 정신이 강조된 미의식과 전통 가구에서 나타나는 미적 가치를 더욱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개발은 반드시 현시대에 맞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가구디자인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 가구산업이 삶의 양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식의 조합 또는 전통과 현대의 가치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발전시키어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본다.

## 사 사

본 논문은 2013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참 고 문 헌

- 김삼대자. 2002. 한국의 목가구. 서울역사 박물관.  
 박영규. 2011. 한국전통목가구. 한문화사: 6-7, 75, 395-396.  
 안중수. 2006. 동양의 자연관. 한국학술정보(주): 194-195.  
 이희승. 201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373.  
 임영주. 1981. 목칠공예-한국의 미 제24권. 중앙일보사: 192.  
 임석재. 2011. 우리건축 서양건축 함께 읽기. 컬처그라퍼: 98, 394-395.  
 장경호. 1992.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435.  
 함성호. 2011. 철학으로 읽는 옛집. 열림원.  
<http://news.chosun.com>  
<http://www.bulguksa.or.kr>  
<http://www.cdg.go.kr/main.htm>  
<http://www.dosanseowon.com>  
<http://www.haeinsa.or.kr>  
<http://www.hwaeomsa.com>  
<http://www.soswaewon.co.kr>

**Table 3.** The beauty of open space

전통건축	전통가구	개방적 공간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의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옥의 개방적 공간의 특징</li> <li>- 전통 서안의 개방성</li> </ul>
담양 소쇄원	서안, 65.6 × 28.6 × 28.6 cm, 19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적이고 개방된 공간의 미가 적용된 종묘의 정전기둥</li> <li>- 개방적 공간의 반복을 보여주는 19세기 조선시대 장문갑</li> </ul>
종묘 정전	장문갑, 144 × 22.5 × 36.8 cm, 19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와 외부 공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전통누각</li> <li>- 뼈대로만 구성되어 네 방향의 공간이 모두 개방되어 있는 사층사방탁자</li> </ul>
강릉 죽서루	사층사방탁자(四層四方卓子), 19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덕궁 열주들의 반복성과 개방성</li> <li>- 가는 대나무 살이 반복적이고 개방적으로 구조를 이루는 죽제고비</li> </ul>
반복적인 열주, 창덕궁	죽제고비, 21.1 × 5.0 × 82.6 cm, 19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가현(사랑채) 대청에서 하염정 입구 협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놓은 측면</li> <li>- 경쾌한 개방적 공간미의 강원반의 측면</li> </ul>
달성 삼가현	강원반(盤), 35.5 × 46.7 × 28.2 cm, 19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건축의 공간적 특성인 중첩(重疊)과 관입(貫入)</li> <li>- 개방적 공간의 반복이 돋보이는 사방탁자나 부엌가구인 진설탁자</li> </ul>
공간의 연속성, 창덕궁 후원	진설탁자, 소나무, 143.7 × 113.5 × 31.3 cm, 18세기	